

우리 쌀로 만든 수제맥주 풍미 호평

농진청, 소비자 대상 시음평가·설문조사 결과... 맛과 향 종합기호도 측면에서 선호도 높아

수제맥주의 인기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맛과 향을 지닌 수제맥주의 풍미를 즐기길 원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쌀가루와 맥아(엿기름)를 섞어 제조한 쌀맥주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음평가와 설문조사 결과, 맛과 향, 종합기호도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음평가에 사용한 쌀맥주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인 '한가부' 쌀 품종을 이용한 쌀맥주 제조방법과 수제맥주 제조업체의 오랜 기술을 결합해 만든 제품이다.

'한가부'는 쌀알이 부드러운 연질미로 일반 쌀에 비해 전분입자가 둥글고 조식이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당

화될 때 전분이 뭉치지 않고 발효가 잘되는 쌀 품종이다.

맥주 선택기준에 대한 설문 응답으로 맛(76%), 향(15%), 가격(5%), 브랜드(3%), 기타(1%)순으로 응답해 맥주 선택에 있어 맛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맛에 대한 맥주 시음 평가 결과, 쌀맥주는 맥아로 만든 수제맥주와 시판되는 맥주보다 근소한 차이지만 가장 높은 선호도(4.77)를 보였다.

시음평가에 사용된 맥주는 쌀맥주, 100% 맥아로 만든 수제맥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판되는 라거 형태의 맥주 2종을 포함해 총 4종이다.

시판되고 있는 라거맥주와 색과 향에서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각각 81%, 75%로 나타나 쌀맥주의 품질 차

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쌀맥주가 시판될 경우, 응답자의 72%가 '구매의향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로는 부드러운 묵념김(37%) > 쌀맥주의 신기함(33%) > 향이 좋음(21%) 순으로 응답했다.

아직까지 쌀맥주가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 김포, 전주, 고창, 경남 창원 등의 수제맥주 전문점에서 국내산 쌀로 만든 쌀맥주가 판매되고 있으며, 쌀맥주 특유의 깔끔한 맛에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농촌진흥청은 쌀맥주 실용화를 위해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준비 중이며, 다양한 쌀맥주 가공제품 개발과 맥주원료 국산화를 위해 산업체와 협력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이번 쌀맥주 시음 평가에서 사

용된 '한가부' 종류의 원료곡 생산을 위해 지난 4월 '한가부'를 비롯한 건식 쌀가루 전용 품종(밀양317호)을 위탁 생산할 농업인과 협약을 맺고 쌀가루 원료곡 생산단지 10ha 조성, 원료곡 5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국산 쌀로 향과 묵념김을 개선한 쌀맥주를 만들 경우, 시판되고 있는 맥주와 맛과 품질 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해 쌀 소비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가루 대체 쌀가루산업 활성화 Top5 프로젝트와 연계해 소비자 맞춤형 쌀맥주 제품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조달청, 여성기업 CEO 초청 간담회 개최

전북조달청은 27일 청사 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여성기업 CEO 1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여성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도내 여성기업이 조달시장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성기업들은 입찰 및 계약 추진 시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으며, 특히 추정가격

5,000만원이하 소액 구매는 여성기업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수요기관에 안내 해줄 것과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임중식 청장은 "법령이나 조달제도에 대해서 수시로 수요기관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늘 논의된 애로건의사항을 조달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 하겠다"며, "도내 여성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 착수

발급현황 등 직권조사... 관련업계 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매년 5월 실시하는 서면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현황 등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원포인트' 직권조사에서 종합건설업체들은 물론 전문건설업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 정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3월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를 실시하겠

다"고 약속하고 시행하는 이례적인 '예고조사'다.

이는 공정위가 보증실태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적발시 처벌강도, 제도개선 유무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돌입해 최근 일부 종합업체들에게 집행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지난해에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서면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업체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사들이 집중조사 대상이다.

실태조사 범위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 및 하도급·자재 대금 지급 관련 사항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가 작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중소건설업체 현장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수집된 만큼 상반기에 모든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같이 원포인트 예고 직권조사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양호한 여건의 서울 소재 전문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증실태 보고서에서도 업체의 40% 가량이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개선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며 "이례적으로 예고 후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조사 의적으로도 자발적 개선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롯데백 전주점, 가정의 달 맞아 할인행사 풍성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상품행사와 이벤트로 황금연휴 특수잡기에 나섰다.

우선 28일부터 5월 2일까지 롯데백화점 6층 이벤트 홀에서는 북유럽 노르웨이 패션브랜드 '스콘노(SKONO)' 군일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주점 최초로 기획된 진열상품 2/3·4/5만원 군일가 행사로 50~70%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돼 있으며, 자신만의 스타일에 경쾌한 센스가 묻어나는 슈즈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스포츠 대표브랜드인 나이키, 아디다스가 참여하여 런닝화, 샌들, 캐주얼화 등 다양한 품목의 상품을 할인판매 한다.

또한 어린이 날을 맞아 5월 1일부터 5일간 9층에서는 '캐릭터 완구 대전'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터닝메카드, 헬로카봇, 소피·투비 등 다양한 상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아동/유아 상품군에서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대상으로 과자 세트를 선착순 증정하는 사은 이벤트도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박상우 플로어장은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 황금연휴를 맞아 아동/유아, 스포츠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적의 쇼핑 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농신보 전북센터, 발로 뛰는 현장지원 상담실 운영

농협 농신보 전북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업인(농업법인포함) 등에게 적기 영농지원을 위해 현지출장, 교육 등 현장지원 상담실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현지출장 상담 우수 사례로는 무주군 지역의 정책자금 대출보증 지원을 위해 농신보 심사역을 주1회 출장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무주지역 현지 출장상담은 이달 말까지(2개월간) 실시예정이며, 총 52명에게 13억원의 보증서를 발급 할 예

정으로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호평 받고 있다.

이민호 센터장은 "농협에서 2020년까지 슬로건으로 내놓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농신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전북 농신보 3개센터 합산 8,000여원을 발급·지원할 경우 전북지역 농가소득 기여액은 약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10월말까지 현장지원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익산국토청, 해상교량과 함께하는 사진 공모전

익산국토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남지역의 명품 해상교량과 함께하는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27일 익산국토관리청에 따르면 해상교량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아름다운 해상교량 사진공모전'을 추진한다.

공모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해상교량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이번 제2회 공모전의 주제는 '여행지에서 만난 우리의 아름다운 해상교량'이며, 호남지역에 건설된 이후 사

용중이거나 현재 시공중인 해상교량의 경관을 단독으로 촬영하거나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해상교량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응모는 국토교통부 및 익산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주제, 방문동기 등의 내용을 작성한 뒤 사진과 함께 e-mail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공모전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irocn.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어린이날 맞아 기내 이벤트 실시

이스타항공이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5일 국내선 일부 비행 편에서 탑승 어린이들을 위한 기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날 운항하는 김포-제주 국내선 일부 항공편에서는 어린이 승객이 실제 기내에서 객실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승무원 체험을 해보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어린이날 기념 '즉석사진 이벤트'와 '가위바위보 게임' 등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과자세트, 이스타항공 로고 기념품, 색칠공부세트, 종이접기세트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2013년부터 기내 이벤트팀을 구성해 국제선 방콕 노선 등의 중장거리 노선은 물론 특별한 기념일을 위한 기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대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